



2026년 6월 14일(제1304호) 연중 제11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놀러보내는 삶”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해낸 것’에 익숙해 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고,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의 땀과 노력은 소중하지만, 돌아보면 지금의 나는 결코 혼자 만들어 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기다려 주었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 역시 완벽했기에 부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점도 있었고, 두려움과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자신들이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아 본 사람만이 위로를 건넬 수 있고, 용서를 받아 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 혼자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될, 흘러보내야 하는 사랑입니다.

군 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작은 친절로 하루를 버텨낼 때가 있습니다. 힘든 순간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말없이 함께 있어 준 시간, 무심한 듯 건네받은 배려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듦에 있어 꼭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용기의 실천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작은 나눔 안에서 이미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얼마나 받았는가보다 받은 것을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내어줄 때, 공동체는 조금 더 따뜻해지고,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하느님 나라는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계경준(시도요한) 신부
동해(해군 제1함대시령부)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탈출 19,2-6ㄱ
- 회 답 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제 2 특 시 로마 5,6-11
-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복 음 마태 9,36-10,8
- 영 성 제 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묵 50년사)

육군 군중 제2기로 임관한 후 마산 제2육군병원에서 약 1년을 근무하고 제11사단 사령부로 전속 되어 휴전 때까지 복무한 박희봉 신부는 당시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나는 군중으로 임관된 후 마산 제2육군병원에서 1년 남짓 근무하다가 강원도 간성에 주둔하고 있던 11사단 사령부로 전속되어 휴전 때까지 복무하였다. 내가 담당해야 될 부대는 11사단 외에 1군단 사령부, 5사단, 12사단, 15사단, 26사단, 제1101야전공병단, 이동외과병원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해 있었다. 주 일에는 위의 여러 부대를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순회하면서 평균 6~7회의 미사와 강론을 하고 고해성사를 주었으며, 예비자 교리도 했다. 미사 참여자는 10명 내외였다. 사단 군중부장인 나에게도 차량이 배당되지 않아 길가에 서 있다가 다행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트럭이 있으면 편승하고 차가 없으면 걸어서 목적지까지 강행군을 하였다. 전방 부대의 천주교 신자 수는 개신교와 200대 1 정도로 적었으나, 그렇다고 사단본부에 편히 앉아 세월을 허송할 수는 없었기에 가끔 예하 연대와 대대, 소대까지도 순방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무거운 미사 가방을 들고 신부의 군대 보급을 털어 주보에서 구입한 맥마 위스키와 오징어 안주 등 위문품은 복사인 고석렬(가밀로) 상사가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민간 본당에서는 신자들이 신부를 찾아오는 것이 관례이지만 군대에서는 반대로 신부가 신자를 찾아가야 한다. 포탄이 쏟아지는 최전방 병커에 도착하면 신자 군인들은 ‘신부님이 적전 150미터 최전방 고지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며 감격의 눈물마저 흘렸다. 그들은 병커에서 기어 나와 입대 이후 밀렸던 고해성사를 보았다. 고해성사가 따로 있겠는가? 병커 앞은 천길 만길 눈 쌓인 낭떠러지, 게다가 눈보라를 동반한 강풍이 휘몰아쳐 아차 하는 순간에 실족하면 떨어져 죽는다.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가 보통이다. 고해신부는 바람에 몸이 날려가지 않도록 한 손으로는 나무를 부들켜 안고 또 한 손으로는 병사의 어깨를 끌어 잡는다. 병사는 신부의 귀에 입을 바짝 갖다대고 귀머거리처럼 큰 소리로 고해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포탄이 나르는 것 같은 소리를 내는 바람 소리 때문에 고해자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공공 언 채로 중대장의 병커 속에 50명의 중대원이 집합하면 천정이 낮아 머리는 숙이고, 다리는 큰 대자로 벌린 채 2시간 동안 영세식, 미사와 강론, 질의 등을 해치워야 한다. 산소 부족으로 호흡도 힘들고, 그런 고문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이렇게 성무를 끝내면 그날 밤은 참호 속에서 병사들과 지내며 개인 상담을 하고 가져 온 위문품도 나누어 준다. 그러면 군인들은 ‘신부님이 와 계신 오늘 밤에는 적의 야습이 없으리라’고 믿으며 간소한 잔치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1주일 내지 열흘간의 예하 부대 순방 일정을 마치고 사단 본부 천막 성당 숙소에 돌아오면 병사들에게서 옹이 번식할 대로 번식한 보리알같이 새하얀 서개 잡기에 한 시간은 허비하곤 하였다. 그럼에도 보람찬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었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묵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p>복</p>	<p>음</p>	<p>목</p>	<p>상</p>	<p>-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p>	<p>◆ ‘군중의 시묵’ 3주치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량: A4 반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억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선정 시 소장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p>눈에 밝히는 이들</p>					
<p>눈에 밝히는 이들이 있습니다.</p>		<p>님의 눈에, 가슴에 담긴 나입니다.</p>			
<p>가슴에 담기는 이들이 있습니다.</p>		<p>내 눈에, 가슴에 담긴 님입니다.</p>			
<p>▶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p>					

상화이야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최후의 만찬 직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시는 순간을 그린 이 그림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의 재현을 넘어 인간적인 따뜻함과 깊은 영적 의미를 전달한다. 19세기 핀란드의 대표 화가인 알베르트 에델펠트는 인물들의 표정과 몸짓을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잔잔한 감정의 울림을 전한다.

그림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한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이 담겨 있다. 몸을 한껏 낮춘 채 조심스럽게 발을 감싸 권손길에서는 깊은 배려와 사랑이 느껴진다.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예수님의 표정에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듯 고요한 결의마저도 느껴진다.

알베르트 에델펠트(Albert Edelfelt, 1854-1905)
1898년 제작 / 종이에 유화(그리자유 기법), 58 × 47cm
스톡홀름 국립미술관, 스웨덴

그 주위를 둘러싼 제자들의 반응 또한 다양하다. 어떤 이는 놀란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 이들의 표정에서는 당혹감과 경외심이 동시에 읽힌다.

실내를 채우는 부드러운 빛은 인물들의 얼굴과 손 위에 은은하게 내려앉아 경건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예수님의 맨팔과 제자의 맨발이 있는 부분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빛을 집중시켜 작품의 핵심 장면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열두 제자를 세상에 보내신다. 이 작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1주일: 해병대요람 김향리 신부

◆ 교구장 동정

- 전진(제1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14일(주일)
- 제36보병사단 부대 방문
 때: 6월 16일(화)
-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
 때·곳: 6월 18일(목), 아론의 집
- 2026년 군중장교 임관식 및 미사
 때·곳: 6월 19일(금), 육군종합행정학교/남성대 성당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